

민주, 전남 11개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일자 확정... 4월 6~7일

목포·여수·광양·나주·담양·장흥·강진·완도·진도·영암·무안 원팀 협약식·경선방법 설명회... 공명선거·승리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1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자를 확정했다.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여수·광양·나주·담양·장흥·강진·완도·진도·영암·무안 등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자를 4월 6~7일로 확정했다.

전남도당 상무위원회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후보자로 우선 의결한 이들은 목포시장 후보 강성희·이호균(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여수시장 후보 김순빈·김영규·백인숙·서영학·이광일·정기명·주종섭(7인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3인 본경선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과반 득표자 없는 경우 결선)이다.

광양시장 후보는 김태균·박성현·이종재·정인화(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나주시장 후보는 윤병태·이재태, 담양군 후보는 박종원·이규현·이재종, 장흥군수 후보는 곽태수·김성·왕윤재, 강진군수 후보는 김보미·차영수다.

완도군수 후보는 신의준·우홍섭·이철·지영배·허궁희, 진도군수 후보는 김인정·이재각, 영암군수 후보는 우승희·전동평, 무안군수 후보는 김산·나광국·류준호·이해자·정승욱·최옥수다.

전남도당은 재심 등의 사유로 후보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의결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4월5일까지다.

이달 30일부터 4월3일까지는 합동토론회, 4월1~3일 합동연설회를 계획하고 있다. 토론회와 연설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열릴 예정 이다.

전남도당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협약식 및 경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등록 후보자들은 협약식에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과 당 결정에 대한 승복을 공식 서약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음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국민참여경선 ARS(자동응답전화) 투표 기간 중 조사 방해 행위 금지,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고 경선 결과와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 등이다.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들이 27일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공정한 경선 문화 정착과 당내 통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후보가 원팀 정신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6·3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책배심원단 심층토론회에서는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27일 오후 열린 서부권 심층토론회에 참가한 한 배심원은 "전남은 여전히 소멸위험지역"이라면서 "인구 반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후보들에게 물었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농어촌 소멸, 특히

서부권 심층토론회... 지역소멸 극복 어떻게?

청년 일자리·소득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제안

신정훈 "하루 아침에 해결 안돼...인식 전환해야"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주 예비후보는 "현재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이 안된다"면서 "신산업 위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햇빛연금 등 농업소득

을 올릴 수 있어야만이 젊은이들이 애 키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예비후보도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았다. 민 예비후보는 "농업소득이 지난 8년 사이 경박에 비해 60% 수

준으로 떨어졌다"면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광은 7년째 출산율 1위다. 왜냐하면 영광이 돈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영광원의 700억 지원금과 곡성의 기본수당 등 결국 소득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으면 온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예비후보도 청년 유출 원인을 일자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예비후

보는 "전남도는 함께 출산율 전국 1위"라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것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지역 유치와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례적으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신 예비후보는 "반도체 산업으로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좋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남 인구는 지난 10년동안 12만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서남권에서 줄었다"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20년전부터 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후보자는 인구를 100만 늘리겠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인구 그래프는 역전된 적이 없다"면서 "인구문제는 하루 아침에 딱딱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가 된다... 선거사무소 개소

29일 박광태 전 시장 등 지지자 결집 "최고의 특별시장 감"

"이재명 대통령 바람대로 지방주도 성장 새 기록 쓸 것"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

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 박균택,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

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광주·전남지역 원로들도 대거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재태 민주당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경륜을 가진 김영록 후보가 당선돼야만 전남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당당히 경쟁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손으로 김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도 인사말에서 "일 잘하는 사람, 일을 해 본 사람만이 전남광주특별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서 "데이 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성과를 낸 김영록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일 잘하는 저 김영록이, 이 대통령이 밝힌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면서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 말미에 시민들과의 즉석 소통시간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

제와 여성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다.

/전광춘 기자

'5선' 국회의원 박지원 민형배 후원회장 사임 "당규 위반 논란"

광주·전남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당규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경선후보의 후원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박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를 통해 "현역 의원은 선거 기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당규에 따라 어제 민 후보 후원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년 전 총선 때 해남·완도·진도 공천 받을 때 (이른바) '수박'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민 의원이 제가 공천 받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낙연 전 총리가 '민 의원 잡겠다'고 민 의원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후원회장직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이번 특별시장 선거에도 자동으로 후원회장이 된건데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고 나도 국회의원직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 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히려도 없앨 겸) 후원회장직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후보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고, 이 광재 전 강원지사 등 중랑급 인사들이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시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2026 Pre Wando International Seaweed Exhibition

완도군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